


**오늘의
게시판**
2006 광주정보통신전시회 개막식

오전 10시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행사
21일
▲2006 광주정보통신전시회
 =개막식 오전 10시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유비쿼터스 광주(Ubiqitous Gwangju)'를 주제로 삼성전자·KT·HP·한국 IBM 등 국내외 83개 업체가 참여. 부대행사로 'U-city 포럼·창립 기념식 및 기념 강연·정보보호 세미나' 등 개최.

▲제 25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오전 10시 담당군 주성경기장. 전남도내 시·군 의용소방대원 5천명·소방공무원 200명·관련 담당자 등 6천여명 참석 예정. 소방기술경연 및 소방경비전시회, 인명 구조 등 시범.

▲제 1회 한우상이 경진대회=오전 9시 화순군 화순을 다자리 화순축협 가축시장. 생후 5~6개월된 암·수 송아지 100마리 출품.

▲캐나다 유학 세미나=오후 3시 광주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캐나다 빅토리아시 SOOKE 교육청 한국 사무소에서 국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국제학생프로그램·겨울 캠프에 대한 정보 제공.

▲제 3회 아시아송 페스티벌=오후 6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 한·중·일·태국·필리핀·베트남·홍콩·대만 등 아시아권 9개국 12개팀이 참여.

▲제 7회 전국가사문화학 학술대회=오전 10시 한국가사문화관. 최재남(경남대)·김학성(성균관대)·김성기(조선대)·최한선(남도대)·박준규(전남대)·신성명(상지대) 교수 등이 연강정 송순의 연구와 전망·시조·가사·한시·분재기 고찰·사상 등에 대해 주제 발표.

▲2006 무인분청 문화재 개막식=오후 6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분청국악대합연·무안분청작은음악회·여린이 무안 분청 성형대회·타악페포먼스·무안분청 경매 등 행사. 24일까지.

▲아시아 문화동반자 심포지엄=오후 2시 전남대 국제회의동 응봉홀. '아시아문화동반자 협력 관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노명우 아주대교수·Ms. Joan P.Serrano 필리핀 변호사가 주제 발표.

▲제 12회 강진 다산강좌=오후 3시 강진군문화회관. 박원순 회장재작소 상임이사가 '지역의 미래·문화를 디자인한다'를 주제로 강연.

▲제 504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대회의실. 김경진 대전지검 천안지청부장검사가 '대한민국 세계 1등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강연.

▲주소연 명창 판소리 공연=

21일(목) 오후 7시 빛고을 국악

전수관.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옐리스'=21일(목) 오전 10시10분, 11시2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국악현악과 함께하는 신창국 '성춘향'=21~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조제원 귀국 피아노 독주회=21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어림회전=27일까지 삼계 갤러리.

▲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초

대전 '미문호전'=27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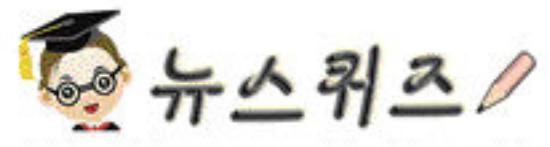
▲김인화 초대전=31일까지 북광주우체국.

▲조선대 미술학부 졸업전=27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정일 개인전=28일까지 일곡갤러리.

▲아트페어=27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우리지역업체 우수제품 전시회전=21일까지 광주 북구청갤러리.



30.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딩 FC로 이적한 이 선수가 5경기만에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렸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16일(한국시간) 범 영국 세필드 브래들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6-2007 프리미어리그 5차전 세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 오른쪽 윙 포워드로 선발 출전해 1-0으로 이기고 있던 전반 25분 강력한 원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한 방을 터뜨려 '스나이퍼'라는 별명이 붙은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설기현 ② 이천수 ③ 김남일 ④ 정조국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1일(금 7월 29일 쯔丑)

子 36년생 직업의沈淵과 재물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48년생 자금의 흐름을 다시 짚고 해보야 할 때. 60년생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나아내야 한다. 72년생 안도의 숨을 들리니 再充電하라. 84년생 大苦는 없지만 득도 없다.

丑 37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49년생 평범한 하루이나 呂體數는 있다. 61년생 시간을 내어 주변을 살펴보라. 73년생 직장에 고민이 생기니 혁명하게 쇄신해야. 85년생 菩提과 금전거래는 금물.

寅 38년생 하늘 한번 걸어온 길우라. 50년생 할 일이 있어 건강을 점검해보라. 62년생 가족 계속 될 것이나 손아래 사람의 苦衷을 생각하라. 74년생 자기개발에 계획을 세우고 조율하고 추진해야 한다.

卯 39년생 남자는 처가 죽은 여자는 시가 죽 가족에 안부를 전하라. 51년생 자녀로 불편은 있으나 어렵지는 않다. 63년생 문서는 꼼꼼히 살펴 확인해야 하리라. 75년생 보증은 설마금들이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할 때.

辰 40년생 심기가 개운치가 않으니 운동을 해야. 52년생 부부끼리 불편이 생겼으면 서로 사랑하라. 64년생 유동 속에 虚送歲月 한탄 하라. 76년생 형제나 근친간의 말썽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때.

巳 41년생 부부 및 주변에서 소사에 소생이 일어날 수 있다. 53년생 모든 일에 즐겁게 시작된다. 65년생 뜻밖의 숨을 들리니 殷勤하게 살펴보아. 77년생 청대 육신내지 맡고 처분하게 자리를 돌아보고 모든 것을 실리위주로 정리해야.

午 42년생 생활이 나타해질 수 있으니 부부간의 등으로 氣氣投合을 시도해 보라. 54년생 친나라인 곤경에 처할 수 있다. 66년생 미운 사람이 나타나니 용서하며 살아라. 78년생 옛 것으로 맑은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未 43년생 부부간의 사랑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55년생 가장과 부부간의 불화는 생방과 실이니 사랑으로 해결하라. 67년생 모든 일 이 길사로 연결되며 이사 할 수도 있다. 79년생 용기 있게 전진하면 무리 없이 결과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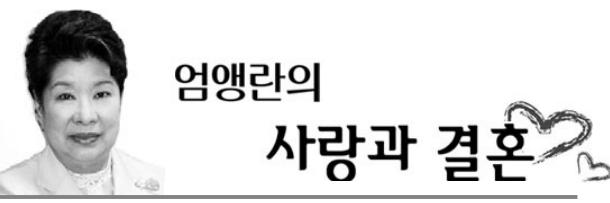
申 44년생 沈淵弱氣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손아래 사람에게 내 것을 내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56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68년생 활동을 즐길 줄 알게 계획이 계속 미루어진다. 80년생 옛 문서 잡고 눈물이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酉 45년생 빛일을 마무리 할 사람이 없다. 57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69년생 백걸들은 가벼우나 마루가 시원차가 않다. 81년생 지혜 있는 선배와 상의하고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戌 46년생 栲枯回春이나 더욱 더 잘 가꿔야. 58년생 희망의 새아침을 만드는 견이니 계획을 세워라. 70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보라. 82년생 도와줄 사람이나 못 본색해 괴로워하지마라.

亥 47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의 아픔들이 보인다. 59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정직과 신뢰에 있다. 71년생 큰 투자는 미루고 신사업의 내실을 기하니 心의 苦痛은 없으리라. 83년생 여성은 마님 팬 꼭 결혼한 선배와 상담하라.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③ 템포를 조절하는 연애

'때로는 발빠르게, 때로는 여유있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아도 서둘러야 할 일과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해야 하는 일이 있듯이 사랑하는 사이에도 모든 것에 있어 속도, 즉 완급의 조절이 중요하다.

아무리 급한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데에 있어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여유를 부릴 경우 서로의 감정 친화에 있어 그 시점이 어긋남으로써 안타깝게도 사랑을 스쳐지나 버릴 수도 있게 된다.

사랑하는 사이에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행동과 대화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식사를 마치고 상대방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재빠르게 먼저 계산해 보자. 다음 데이트 코스의 차원과 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데이트비

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수록 상대방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적극적이 될 수 있다.

또 상대방이 머리가 아프다면 당장 뛰어가서 두통약을 사다 줘 보자. 말로만 괜찮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세심한 위로가 돼 상대의 마음이 한층 달가울 것이다.

데이트 후 헤어질 때는 느느느느 여유를 보여주자. 먼저 뒷모습을 보여주지 마라. 상대방이 먼저 돌아서 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밝은 미소로 지켜볼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진다.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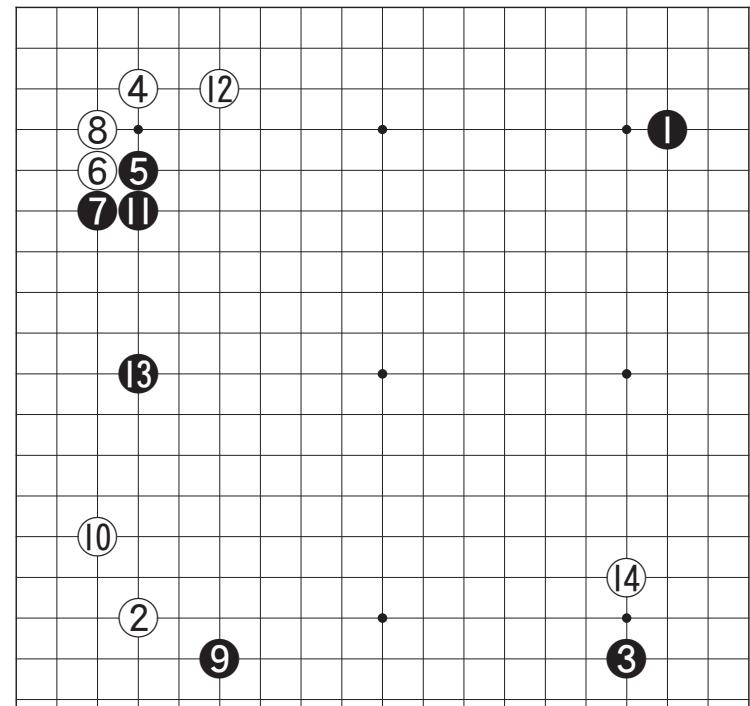
깊이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모습 보여줘야

상 배웅 받는 입장에 놓여 있다면 가끔은 먼저 배웅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과 속도를 적절히 맞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걸음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서로의 친밀감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보폭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

대화에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은 같은 결과의 대답일지도라도 상대의 감정이나 반응을 크게 달라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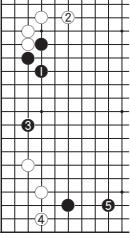
그동안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와서 신중히 내린 결정이라도 쉽게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비밀대회

입상이 걸린 한판 4회전 2국 1보(1~14)

白 이강민 5단
(PCA생명)

黑 박정규 5단
(KT A)



〈참고도〉

PCA생명은 이번 대회에 첫 출전

KT는 언제나 우승후보로 꼽히는 팀이다. 그중 이강민 5단은 전통의 강호. 이번에도 A, B 두팀이 출전하여 우승컵을 노렸으나 성적이 부진하여 우승권은 부진하고 우승권은 A팀이며 이 판의 결과에 따라 3위 입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PCA생명은 이번 대회에 첫 출전

이영구 6단이 20일 스카이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0기 SK가스배 신예프로 10전 1보 B조 등을 재재국에서 윤준상 4단에게 277수 만에 백 반집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이영구 6단은 본선 리그에서 공동 1위(4승1패)를 기록한 윤준상 4단과 대회 규정에 따라 재재국을 결승 끝에 짜릿한 반집승을 거뒀다. 이 6단은 A조 수위를 차지한 백종석 4단과 3번 기로에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

특히 조훈현 9단이 전성기 때 애용하여 일명 '조훈현 정석'으로 불려져 있다.